

## 산업계FAA, 항공기 안전대책 마련 부심

항공우주 산업체들이 공동으로 미국 정부의 항공기 운용개선,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항공기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연구 등 항공기 운항안전 개선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 FAA 및 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항공사고 경위를 수집하고 공통된 사고 요인을 해소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앞으로 항공기나 안전운항 장비로 인한 사고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잉사, 유럽의 에어버스사 그리고 여러 엔진업체는 지난해 초 공동으로 항공기 사고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FAA는 지난해 3/4분기에 소위 "다방면에 걸친 안전연구"라 불리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결과는 미국 혹은 유럽에만 적용되지 않고 세계에 걸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의 연구원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지역의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산업계가 동 지역을 연구하는 이유는 항공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는 아시아 등의 지역에 항공안전도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사고율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제항공기 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공동작업팀의 목표는 최선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작업에 정부, 산업계 그리고 일반대중의 관심유도와 예산확보에 있다. 일부는 NASA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NASA가 4억 5천만 달러상당의 비행안전우선 프로젝트를 런치했기 때문이다.

## SIA, 연합전선에 급회전 루프트한자사와 서명

싱가폴에어라인사가 기존의 델타-스위스에어사와의 연합전선에 급제동, 독일의 루프트한자사와 손을 잡았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항공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루프트한자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싱가포르에어라인사는 1996년 루프트한자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타이항공, 에어캐나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어라인시스템과 형성한 스타연합(Star Alliance)의 주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됐다.

동 연합은 유럽 EC의 승인하에

형성되었는데 현재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항공사의 참여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어라인사는 아시아지역 항공사로서 스타연합 참여에 주목을 받았었다.

한편,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양사의 관계는 더 긴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9년부터 양사는 공동으로 화물서비스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남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아울러 양사는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동 양해각서는 스타연합의 형성에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어라인사는 이미 안셋항공과 에어뉴질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도 한데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코드쉐어링등 이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에어라인사는 프랑크프르트, 루프트한자는 싱가포르를 허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루프트한자는 이를 일본에서 인도에 이르는 아시아지역 주 거점 허브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델타항공의 경우 글로벌 엑설런스 연합(Global Excellence Alliance)를 형성했으나 유럽지역 항공사의 흡수실패로 결국 이를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아시아지역 항공사들과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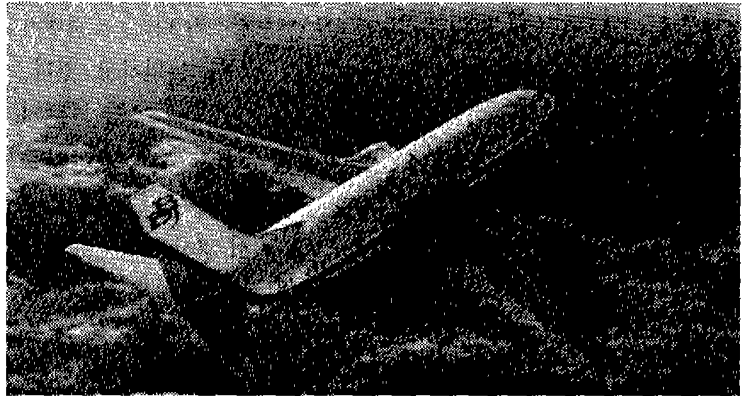
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동사는 대한항공, 전일항공 그리고 중국의 항공사와 코드셰어링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공항을 허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美佛, 항공협정에 난항 개방시기 놓고 갈등

최근 미국과 프랑스간의 항공협상이 결렬되자, 에어 프랑스/델타/컨티넨탈 항공 및 에어 리베르토와 연결된 기타 미국 항공사간의 연대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렬의 주요인은 "오프 스카이" 실시시기가 양국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프랑스가 완전개방시기를 7년후에서 5년후로 미국이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양보하여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던 미국-프랑스간의 항공협상은 1년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었다. 양국은 올 1/4분기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야만 했다.

에어 프랑스/델타/컨티넨탈 항공은 이미 미-프랑스간 노선에 관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협상이 계속지연될 경우 계획된 시기를 모두 연기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리티쉬 에어 웨이즈의 자회사인 에어 리베르토도 미국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항



BA사는 장기적인 여객기 계획으로 중형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협정후의 노선 및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민간 항공국은 이번 양자간 회담이 올 2월경에 재개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이익 다툼이 심화되어 그 결과는 예측불허인 것으로 보인다.

### BA, 초대형 항공기 구매계획 구상 중형기 총160대 규모

영국의 브리티쉬에어웨이즈(BA)사가 올해 초 보잉사 및 에어버스사에 총 160대 규모의 단일/이중통로형기 구매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

동사는 120석부터 200석이상급의 대형 여객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이를 자회사인 에어 리베르토, TAT, 도이치 BA, 퀴타스 항공 등에 공급, 노후기 대체 및 노선확장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

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지난 1996년 BA사는 의향요구서를 보내면서 약 10억 달러 상당의 60대 여객기 구매를 요구했으나 구매계획이 연기되었었다. BA사의 장기적인 여객기 계획은 보잉 737-300/700이나 A319등의 중형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BA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형급의 여객기는 보잉사의 것이 대부분이다. BA사는 단거리 노선에 737기 65대, 757기 48대, A320 10대 그리고 DC-10 7대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중거리 노선에는 767-300ER 25대가 운영중이다.

반면 장거리 노선에는 70대의 747기종을 비롯 17대의 777 등 보잉사 여객기가 대부분이며 7대의 콩코드기를 투입하고 있다.

현재, BA사는 대형기에 42대(747-400 27대, 777-200IGW 9대, 757/767-300ER 각각 3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